

여야, 김행 인사청문회 '진통'... 유인촌, 블랙리스트 부인

국힘, 민주당 일정 의결에 보이콧 원내대표 회동서 정상 개최 협의 매주 1회 정기모임도 갖기로 민주 "유인촌, 뻔뻔함의 극치"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가 4일 국회에서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를 예방, 인사말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국민의힘 이양수 원내수석부대표, 윤재옥 원내대표,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 박주민 원내수석부대표. (사진공동취재단)

5일로 예정된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 개최를 놓고 여야가 막판 협상에 나서는 등 진통이 이어지고 있다. 민주당이 인사청문회 일정·종인을 단독 의결한 것과 관련, 국민의힘이 청문회 거부는 물론 김 후보자의 불참까지 시사했으나 여야 원내대표가 4일 오후 회동을 통해 막판 협의에 나서기로 합의했기 때문이다. 정치권에선 인사청문회 불발은 여야 모두에게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막판 개최에 합의하지 않느냐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국민의힘 윤재옥·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이날 상견례를 겸한 회동을 갖고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정상적으로 개최하기 위해 추가 협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전주에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날 여야 원내대표 회동 이후, "여야 원내대표가 내일 인사청문회가 정상적으로 진행되도록 협의하라고 지시했다"며 "여성가족위 여야 간사 간의 협의를 통해 청문회가 정상적으로 진행되도록 적극적으로 협의해나갈 것 같다"고 밝혔다. 윤영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국민의힘의 사과 요구에 대해 "협의 과정에서 (양당이) 서로 바라는 부분을 함께 얘기하지 않을까"라면서 김 후보자의 출석 여부와 관련해서는 "정상 진행되려면 출석시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여야 원내대표는 매주 한 차례씩 정기적으로 모여 식사하며 소통하기로 했다. 전주에 원내대변인은 "박광온 전 민주당 원내대표 때도 양당 원내대표가 매주 월요일마다 식사를 하며 소통해 왔다"이를 계승해 앞으로도 매주 월요일 내

지는 한 번씩 여야 원내대표가 모여 식사를 하면서 소통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정치권에선 결국 여야가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 개최에 합의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인사청문회 무산은 강서구정당 보궐 선거를 앞두고 여야 모두에게 약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앞서 민주당은 지난달 27일 단독으로 여가위 회의를 열어 김 후보자 청문회 일정과 증인 채택 안건을 의결했고,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여야 합의의 정신을 무시하고 일정을 일방적으로 의결했다며 청문회 불참을 선언했다. 특히, 국민의힘은 이날 야당 단독으로 청문회를 개최한다면 김 후보자가 불참할 것이라며 반발했다.

여권의 이 같은 움직임에 민주당은 이날 김 후보자와 관련된 각종 의혹을 달기 위해 국민의힘이 인사청문회를 무산시키려 한다고 비판했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이날 MBC 라디오에 출연 "강서구정당 보궐선거를 앞두고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이뤄질 경우, 여론에 상당히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고 역량을 갖추지 못한 후보자의 모습이 언론을 통해 공개되는 것에 우려가 있었던 것 같다"고 밝혔다.

하지만, 홍 원내대표는 "증인에 대해서 지금이라도 다소 협의할 수 있다. 일단 5일 청문회를 하겠다고 한다면 그다음부터는 유연하게 협의할 수 있다"고 여지를 뒀으며 결국 이날 오후 국민의힘 윤 원내대표와 회동을 통해 합의의 실마리를 찾았다.

정치권 관계자는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 개최 무산은 여야 모두에게 부담이지만 정국 상황 상 여권보다는 야권에 정치적 손해가 더 크다"며 "현재 로선 개최 합의가 유력하지만 여야의 대치 정국으로 인해 인사청문회 무산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은 인사청문회를 하루 앞둔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후보자에 대해서도 맹폭을 퍼부었다. 유 후보자가 서면 질의 답변서에서 이명박(MB) 정부 당시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의혹에 대해 "이명박 정부에선 블랙리스트가 없었다"고 답한 것에 비판이 집중됐다. 고민정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서면 답변서를 보면 뻔뻔함이 극에 달한다"며 "세상이 다 아는 사실을 부인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임동욱 선임기자 tuim@kwangju.co.kr

정부, 대북전단 살포 '자제 요청' 났다

현재 '처벌 위험' 결정 취지 고려... "민간단체와 소통 노력"

헌법재판소가 대북 전단 처벌법에 위헌 결정을 한 후 대북전단 살포에 대한 정부의 공식 입장에서 '자제 요청'이 사라졌다.

통일부는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의 대북 전단 규제 조항의 위헌 결정 후 대북 전단 살포행위에 관한 정부의 입장이 무엇인지 질의에 "표현의 자유 보장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의 취지를 고려해 전단 살포 문제를 검토하겠다"고 4일 밝혔다.

대북 전단 살포로 인한 북한의 도발 가능성과 접경지역 안전 우려에 대해 통일부는 "필요하다면 관련 법령 등에 따라 현장에서 적절한 조치가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며 "민간과 소통에도 노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통일부는 지난달 26일 현재가 남북관계발전법 제24조 제1항 제3호 부분 및 제25조에 따른

대북 전단 살포 행위 처벌법에 위헌 결정을 내리자 이를 '환영한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그러나 대북 전단 살포 행위 자체에 관해서는 어떤 입장인지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

위헌 결정 전 윤석열 정부는 전단 살포를 법으로 금지하는 것은 잘못이라는 입장과 별개로 민간단체의 전단 살포가 접경지역 주민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기 때문에 자제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러나 현재 결정 후 언론의 질의에 내놓은 공식 입장에는 기존의 '자제 요청'이 없어지고 '대북 전단 살포 문제 검토'와 '민간과 소통'이 들어간 것이다.

이는 일률적으로 전단 살포 자제를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상황과 필요에 따라 민간단체에 협조를 요청하는 방식으로 대북 전단 정책이 바뀐 것으로 해석된다. /연합뉴스

여의도 브리핑

"대한항공 여수~제주 노선 29일 재개될 것"

김희재 의원 "허가 절차 진행중"

더불어민주당 김희재(여수시울)의원이 코로나 19로 인해 중단됐던 대한항공의 여수~제주 항공노선이 29일부터 재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한항공 하만기 전무는 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김희재 의원에 대해 29일 여수~제주 항공노선 운항 재개를 위해 국토부 정기면 노선개설 허가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보고했다.

대한항공이 김 의원에 보고한 바에 따르면, 여수-제주 항공노선에는 140 석 규모의 A220-300이 투입되며, 일 1회·주 7회 운항될 예정이다.

제주발 → 여수행 운항 시간은 제주에서 오후 1시 45분에 출발해 여수에 2시 45분에 도착하며, 여수발 → 제주행 항공은 3시 25분에 여수에서 출



발해 4시 25분에 제주에 도착한다. 운항개시 예정일은 10월 29일 국토부 정기면 노선개설 절차가 완료되면 예약이 개시될 예정이다.

김희재 의원은 "대한항공의 여수공항 항공노선 재개로 사실상의 대한항공 여수공항 재취항의 효과를 볼 수 있게 될 것"이라며 여수-제주 노선 운항 재개에 환영의 입장을 표하면서 "여수와 전남 동부권 시민들 및 관광객들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만큼 대한항공이 여수-김포 항공 노선 운항에도 적극 나서달라"고 요청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한·일, 오늘 차관전략대화... 정상회담 후속 조치

서울서 9년만에 개최... 양자 관계·지역 정세·국제 이슈 등 협의

한일 외교당국이 서울에서 9년 만에 외교차관 전략대화를 개최한다.

장호진 외교부 1차관은 오는 5일 외교부 청사에서 오카노 마사타카(岡野 正孝) 일본 외무성 사무차관과 한일 차관 전략대화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외교부가 4일 밝혔다.

외교부는 "이번 전략대화는 지난 3월 한일 정상회담 결과의 후속 조치로서 약 9년 만에 개최되는 것"이라며 "양측은 한일 양자 관계와 함께 지역 정세 및 국제 이슈 등 폭넓은 분야에 걸쳐 심도 있게 협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일 외교차관 전략대화는 양국이 단순한 현안

협의를 넘어 중장기 관점에서 지역 및 범세계 이슈를 폭 넓게 협의해 나가자는 취지에서 2005년 시작된 채널이다.

그러나 한일관계 악화 상황 속에서 2014년 10월을 마지막으로 9년 가까이 개최되지 못했다.

이후에는 한일 외교차관이 양자 회담을 하더라도 지역 정세나 국제문제까지 깊이 논의하는 전략 대화 형식으로는 열리지 못했다.

한일 양국은 올해 3월 한국 주도의 강제징용 해법 마련을 통해 관계를 복원한 이후 외교차관 전략대화를 비롯해 그간 중단됐던 여러 전략적 소통 채널을 재가동하고 있다.

외교차관 전략대화도 그중 하나로, 지난 3월 윤석열 대통령의 첫 방일 당시 조기 재개에 합의가 이뤄졌다. 이어 올해 8월 윤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캠프 데이비드 한미일 정상회담을 계기로 양자회담을 했을 때도 외교차관 전략대화를 하반기 중 열자는 데 공감이 이뤄졌다.

외교부는 "이번 전략대화는 한일 관계 개선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 시기에 협력 심화 방안을 논의할 수 있는 유익한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오카노 사무차관은 관광부장관보를 지낸 뒤 일본 직업외교관의 최고위직으로 꼽히는 외무성 사무차관에 지난 8월 새로 기용됐다. 사무차관 임명 후 이번이 첫 방한이다. /연합뉴스

못 받은 돈 회수

※ 1년 이상 다른 신용정보회사에 의뢰 후 못받으신 건도 가능합니다!

특수채권 담당자 전문 추심합니다.

25년 경력 국가공인 신용관리사가 직접 관리합니다.

선수금
출장비용
없음

(재산조사비, 법적비용은 필요에 따라 발생될 수 있음)

- 전세보증금, 경매건 및 미배당채권, 상속채권 전문 회수
- 채무자(신용)재산조사만 의뢰 가능
- 법인공사대금, 각종 외상 미수금 회수 전문

전문추심인
직접관리

판결문, 공증·공사대금·각서·운송료·차용증
거래장부·계약서·입금 내역·녹취 등 각종채권상담

중앙신용정보 직통전화 062)521-4109
010-2785-0073

합병 및 주권제출공고

주식회사 파산자산관리(주)와 주식회사 정일풍(유), 주식회사 휴먼에셋(유)은 2023년 10월 4일 임시주주총회 및 주주총회의 사면결의로 (유)은 (유)과 병합하여 그 권의 의무를 승계하고 (유)는 해산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이 합병에 이익이 있는 회사의 채권자는 본 공고제출일(10월 4일)부터 1월 이내에 관련회사에 이의사항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이에 수반하여 (유)은 (유)과 병합 (유)의 보통주식 100의 비율로 할당 교환하기로 하였으므로 관련회사의 주권을 소유하고 있는 분은 본 공고제출일(10월 4일)부터 1월 이내에 그 주권을 관련회사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유)와 (유)가 공고합니다.

2023년 10월 5일

"갑" 주식회사 파산자산관리
광주광역시 동구 서석로85번길 8-12, 4층(대의동)
위 대표이사 이재홍

"을" 주식회사 정일풍
광주광역시 동구 서석로85번길 8-2, 3층(대의동)
위 대표이사 정우석

"병" 주식회사 휴먼에셋
광주광역시 동구 서석로85번길 8-12, 3층(대의동)
위 대표이사 정보균

자본금감소공고

본 회사는 2023년 10월 4일 주주총회의 결의로 자본금의 총액 금250,000,000원 중 금127,500,000원을 감소하여 금122,500,000원으로 하고 그 방법으로 1주 당 금5,000원의 주식 25,500주를 매수 후 유상 소각하여 발행주식총수 50,000주를 24,500주로 감소할 것을 결의하였는 바, 이 자본감소에 이익이 있는 채권자는 이 공고제출일(10월 4일)부터 1월 이내에 이의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구주권을 가진 사람은 위 같은 기간내에 구주권을 본 회사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2023년 10월 5일
주식회사 중경
광주광역시 광산구 임방울대로 611-18 (도천동)
대표이사 박선희

해산 및 채권신고 공고(2차)

본 회사는 2023년 8월 29일 주주총회의 사면결의로 해산을 결의하였는바, 본 회사에 대하여 채권이 있는 분은 이 공고 게재 다음날부터 2개월 이내에 그 채권액을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위 기간 내에 신고가 없으면 그 채권은 청산에서 제외됩니다.

2023년 10월 5일
주식회사 전원나무병원
전라남도 장흥군 장흥읍 동부로 (2층)
청산인 이성국

분실공고

- 분양계약서: 광주 북구 신안동 124-8번지 광주역 혁신지구 한국아파트 스테이 101동 2108호
- 계약자: 이상균

위와 같이 분실공고함.
2023년 10월 5일

산행안내

10월6-7일(금-토)
▲광주호신회 10월 6-7일(금-토) 무박2일(제660차 정기산행) 설악산 울산바위, 금강고성, 금강산 제1봉(신선대) 6일 21시 30분 중앙동 롯데마트 7주차장출발 21시 45분 진월동 목곡 21시 50분 배운우재구 22시 롯데백화점 22시 15분 광주에 송의전당 후문 010-4621-2166, 010-6702-9796 http://cafe.daum.net/gwangjuhosan

ABC협회인증 호남 최대 발행 부수

독자와 함께 걸어온 길 71년
光州日報
광주일보 문화예술매거진
세남

광고문의 227-9600 신문구독 220-0551 여행구독 220-0550